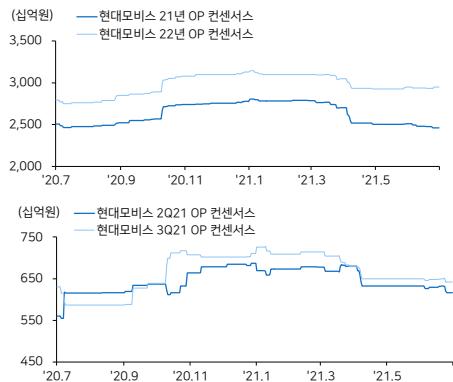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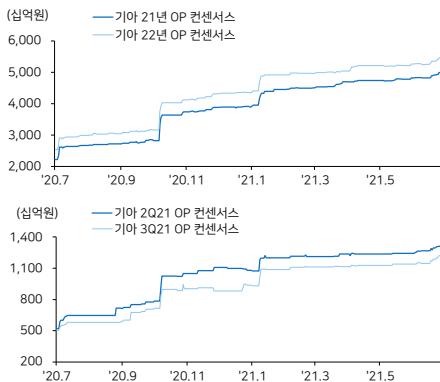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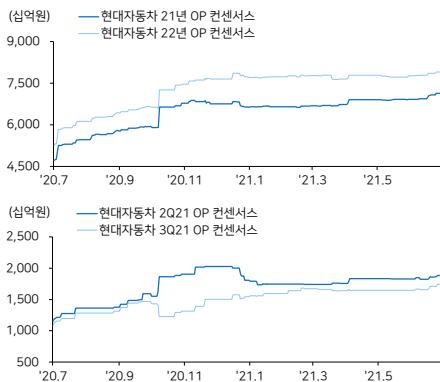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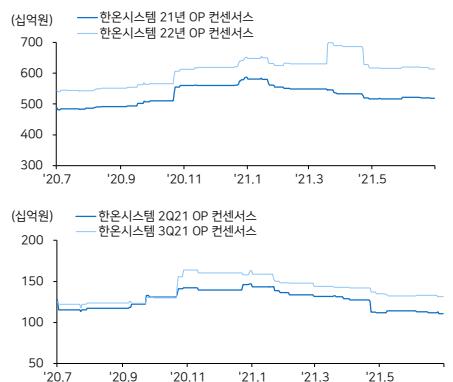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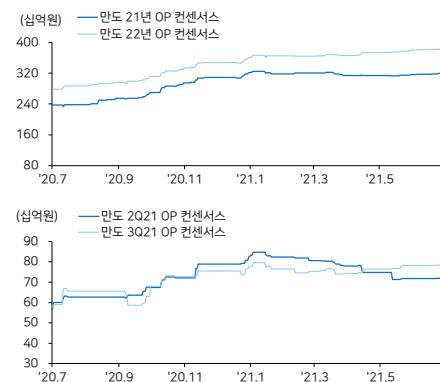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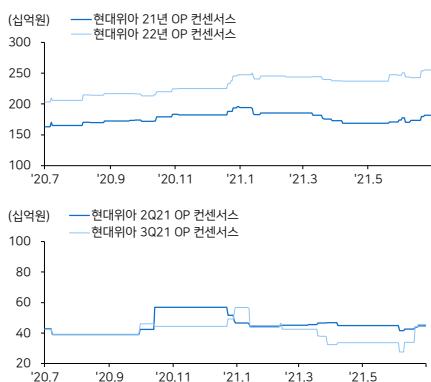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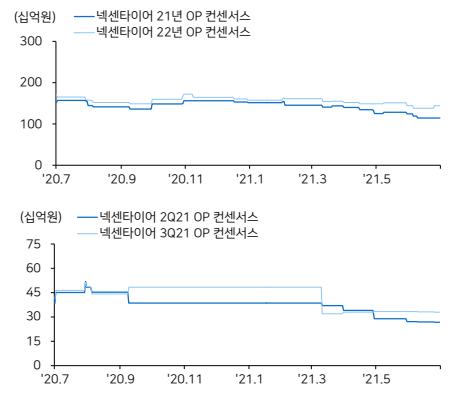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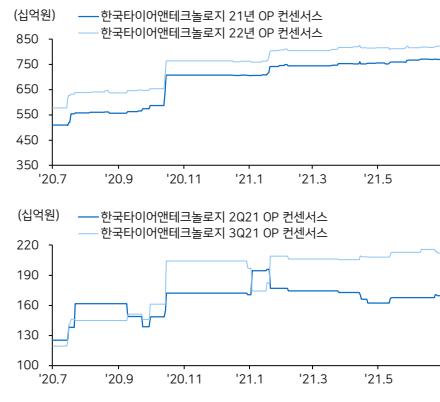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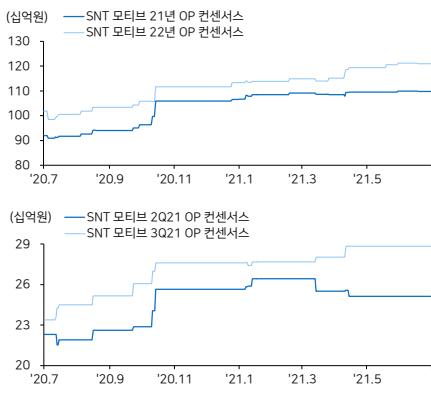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글로벌車, 전기차 투자 가속.. 2025년까지 전동화에 300조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라티스, GM, 포드, 르노닛산, 도요타 등 글로벌 7대 완성차는 2025년까지 전동화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을 위해 가용자원을 '을인'하는 모습.

<https://bit.ly/3i3wKaT>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날았다'. 상반기에만 10만3천대, 매출 7조 원 훌쩍 (오토데일리)

상반기 제네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2,852대보다 약 2배 가량이 많은 10만3,262대를 판매함. 상반기 제네시스의 매출액은 대회 7조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현대차 전체 매출액 57조원의 13% 정도.

<https://bit.ly/3y7toU>

전기차시대 빨라진다..올해 610만대 팔려 지난해 두배 될 듯 (중앙일보)

EV 불량률'은 지난달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동기 2.5배 증가한 59만대이며, 올해 전기차 판매가 61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상반기 누적판매 대수는 중국이 112만대로 가장 많았고, 유럽(106만대), 북미(20만대)가 뒤를 이음.

<https://bit.ly/2UKaLNe>

벤츠, 2030년 전기차에 '54조 투자' 옮인..내연기관 중단 예고 (THE GURU)

다임러는 "2025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애티텍처는 전기 전용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기차만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다만 시장 여건을 조건으로 달았으며, 내연기관 판매종료시기는 언급하지 않음.

<https://bit.ly/3rAq9YP>

"자동차 대신 드론 비행기로 출퇴근까?" (워싱턴중앙일보)

현대자동차가 버지니아 타이슨 지역을 근거로 둔 항공기업 ANRA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UAM 산업 공략을 강화함. UAM 시장 환경 조성, 각종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

<https://bit.ly/3y4QaI7>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점령 나선 완성차 업계 (국민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은 25일 글로벌 안전인증 기관인 UL과 함께 재사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SLBESS)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MOU)을 추진함.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50년에 600조원에 이를 전망.

<https://bit.ly/3eRNv76>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달리는 차안 창문에서 다 가능합니다 (매일경제)

차량용 HUD가 운전자 편의 향상을 위한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늘며, AR기술을 활용한 HUD 특수 시시 활용해지는 중. 현대모비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기술인 '엠비시스'와 기술 협력을 향후 전망.

<https://bit.ly/3PBpJUC>

Valeo confirms outlook, expects chip shortage to ease (Automotive News Europe)

Valeo는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약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하반기 중 차량용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또한 반도체 공급업체 Texas Instrument는 생산능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kWf8z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